



광주시민·예술가 함께 꾸미는 축제 '천인공노'

(天人共努)

광주예술아트페스티벌

8~10일 광주공원 앞 천변

광주예술아트페스티벌이 주최하는 제6회 광주예술아트페스티벌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광주공원 앞 광주천변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천인공노(天人共努)'다. 광주 시민들이 하나돼 함께 행사를 꾸려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 새롭게 마련한 옛 서구청 광주예술청 청사 일원에서 진행했다 올해 다시 광주천변으로 장

소를 옮겼다.

8일 오후 7시 열리는 개막 콘서트는 프로젝트 '천인공노'다. 광주예술인 천인의 꿈을 담은 '천탑 광주 아트 타워' 점등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광주음악협회 회원 합창단, 수피아여중 관악반, 광주 화정교회, 엔시엔 요넬클럽 등 시민예술가 천명이 함께 부르는 '천사들의 합창, 천인 오케스트라'가 이어진다.

9일 같은 시간에 열리는 '수상한 콘서트 1-Young & Hot'은 젊음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북의 향연 '아시아의 역동', 비보이 공연, 레이저

마술쇼, 록밴드 공연 등이 이어진다. 10일에는 '수상한 콘서트 2-Classic & Deep' 공연이 펼쳐진다. 소프라노 김미옥·김진희, 테너 강동명, 바리톤 김지욱의 공연과 함께 한국무용 '외집', 현대무용 '젊음의 축제', 파노라마 '남도민요', 트로트와 통기타 공연이 이어진다.

매일 공연이 끝난 후에는 '수상한 파티'가 열린다. 8일에는 예술가들과 함께 하며 9일과 10일에는 와인파티와 살사파티가 펼쳐진다.

또 시와 음악, 캐릭터가 있는 노천카페 '남만에 대하여'를 운영하며 시민참여프

로그램 '도전 천곡',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1000호짜리 큰 그림을 함께 그리는 '천호 캔버스', 시민 예술가 천인의 모습을 전시하는 '천인 얼굴전' 등도 열린다.

매년 예술 산하 각 협회가 집을 만들고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대접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집들이 퍼포먼스와 협회별 다양한 공연은 올해도 이어진다. 그밖에도 불룩 썩기, 건축 모형 전시, 깃발 만들기, 특수분장 체험, 댄스 배틀, 시민 노래방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 9월 열렸던 광주 대인예술시장 '별장'

그리움으로 물드는 시월 '별장'

대인시장 9~10, 23~24일

광주 대인시장의 '별장'이 '그리움으로 물드는 시월'을 주제로 두 차례(9일~10일, 23일~24일) 펼쳐진다.

10월 별장의 테마거리는 대인시장 내부 주차장 일대 상가거리에 조성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그리움으로 그리다'에서는 방 문객들이 그리워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 전시하는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추억을 테마로 만든 아트상품들도 만날 수 있다.

길거리 공연에서는 퓨전 국악 앙상블 '연(戀)'이 자작곡 '그리워할 연(戀)'을 연주한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그룹 '뚜뚱 앙상블', 포크트리오 '우물만 개

구리', 아이리쉬 포크 '가리수봉', 싱어송라이터 '가롱등 뮤직', 감성밴드 '조아브로' 등도 시민들을 만난다.

'10월 세시봉(歲時·Bon) 전시'(강성호 작가 외 25명 참여)는 '단풍'을 주제로 창작스튜디오 다다(대인수산시장 주차타워 5층)에서 열린다. 한평갤러리에서는 '몸-그리다'를 주제로 창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대인예술시장 입주 작가들의 아트상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콜렉션샵 '미담(Made In Daein Art Market)'도 문을 연다. 문의 062-233-1420.

'별장'은 별이 빛나는 밤에 별 별 일들이 벌어지는 장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임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나주 오량동 삼국시대 가마터서

대형 옹관 생산시설 '유구' 발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삼국시대 가마터인 나주시 오량동 요지(사적 제456호)에서 공방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확인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는 지난 3월부터 나주시 오량동 산 27-4번지 일대에서 진행한 제7차 발굴조사 결과 가마가 밀집된 지역의 동쪽에서 배수구와 기둥구멍을 갖춘 유구(遺構·옛날 건물의 잔존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 유구가 정형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옹관(甕罐, 독으로 만든 관) 제작과

관련된 공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요지 발굴조사는 가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옹관 생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설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

가마의 규모는 길이 700cm, 최대 너비 170cm, 잔존 높이 100cm이며 기단란 타원형으로 가마 앞에는 작업 공간인 요전부(窯前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연구소는 제7차 발굴조사 성과를 7일 오후 3시 발굴현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광주전남소설가협회 9·10일 광양·보길도 답사

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정용호)는 오는 9일과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 후 소설가의 고향 광양과 운선도의 문학적 자취가 남아 있는 보길도로 답사를 떠난다.

이날 모임에는 '소설문학' 동인으로 활동했던 주동후 작가의 고향과 문학적 흔적을 둘러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 작가는 1964년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신춘문예와 1966년 신아일보 소설 입선으로 문단에 나왔고 '흔의 소리' 등 작품집을 펴

냈다. 이날 모임에는 고(故)주동후 소설가 문학비 건립 추진상황 보고와 동인지 발간 일정 공지 등이 있을 예정이다.

광양을 둘러본 후에는 부용동정원, 세연정 등 운선도의 문학이 오롯이 남아 있는 보길도를 방문해 고산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조망할 계획이다.

한편 출발은 9일 오전 8시, 회비 5만원(숙박비 및 교통비 포함).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드

"기어코 고대하던 우렁찬 북소리와 함께 감격의 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경성의 화가들도 '내 나라 새 역사에 조약돌이 되자'는 고귀한 표언 아래 단결돼 나라 일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의 '20세기 근대미술의 거장 이쾌대...전'(7월22일~11월1일·이쾌대전)을 찾은 기자는 전시

장 한편에 진열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에 시선이 멈췄다. 이쾌대(1913~1965) 화백이 절친이자 선배인 화가 진환(陳煥·1913~1951)에게 보낸 편지였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감격과 민족미술이 나

화였다. 특히 진 화백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소(牛)에 비유해 수십 여 점의 유화와 스케치를 남겼다. 미술관에서 만난 대표작 '천도와 아이들'(1940년대 추정)과 '우기 8'(件記·1943년)은 소재와 화풍이 이중섭(1916~1956) 화백과 유사해 당시 각별한 관계였음을 추론케 한다.

특히 그에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부친의 반대로 서울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상과(商科)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한 후 큰 매형(장봉구)

故 진환 화백을 아시나요

이갈 방향을 고민한 당시의 상황이 생생해 순간 몽롱했다. 광복 70주년과 타계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 전시는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한동안 금기시됐던 이 화백의 회고전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대구의 근대문화재단이 '계산예가'(桂山藝家)에서 영상물로 접했던 이 화백의 대표작들을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경북 칠곡출신인 이 화백은 젊은 시절 대구에서 잠시 활동한 인연으로 대구 문화예술인들의 집에 '입성'하게 됐다.

하지만, 이쾌대전에서 얻은 가장 큰 감동은 이렇듯 생소한 진환 화백과의 만남이었다. 고창 출신인 그는 이쾌대가 남긴 수십 여 편의 편지와 사진에 '단골'로 등장할 만큼 이 화백의 삶과 예술에 큰 영향을 끼친 화우(畫友)이자 멘토였다. 그도 그럴 것이 1930년대 초반 일본에서 만난 두 사람은 김종찬, 이중섭 등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미술가 협회'를 결성, 서양화에 전통 회화의 기법과 색채를 도입한 민족

이 살고 있는 광주로 '피신'했다. 하지만 쫓기듯 떠난 '광주행'은 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됐다. 광주에 정착한 예술적 기운은 큰 자극이 됐고 매형으로부터 소개받은 지역 화가들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 얼마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일본 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홍익대 초대 교수로 재직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그의 못다 한 화업은 현재 차남 서양화가 진경우씨가 광주에서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38세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진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지만 이쾌대와 진환의 위상이 너무나 다른 것이다. "진환은 망각속에 묻혀 채 평가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30~40년대의 작가"(평론가 윤범모)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외닿는다. 그래서 말인데, 진환 화백의 '분신'들을 볼 수 있는 이쾌대 순회전을 광주에서 유치하면 어떨까. <편집국장·문화선임기자>

1박2일 '템플스테이' 1만원에 체험하세요

전국 사찰 75곳 참여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2015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만원(幸福滿圓) 템플스테이' 행사를 연다. 오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75곳이 참여한다. 이번

관광주간에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사찰 20여 곳도 합류했다. 사찰별로 108배, 참선, 트레킹, 만다라 명상, 다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선착순 신청자 1만명에 한해 당일 템플스테이는 5000원,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1만원에 제공된다. 접수는 전용 예약 페이지(fall.templestay.com)를 통해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수수료 면제

아파트 담보대출(특별금리상당)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이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 대출한도: 최고 50억
지역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지역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블루밍지점 (영주동) ☎513-4150 매곡지점 (매곡동) ☎572-4150 청단지점 (청단동) ☎576-4150

북광주신협 일곡지점 (일곡동) ☎572-8167